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도가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선 사업장과 종교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송하진 도지사과 방역 모범업소 및 단체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건강·지역상권 안정화 기여 감사”

전북도, 코로나19 방역 모범업소 표창

종교·음식점 등 9개 분야 20곳 선정

전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선 사업장과 종교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는 21일 이 같은 방역 모범업소·기관을 선정 시상하고, 감사를 표했다. 수상 받은 모범업소·기관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확진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업소·기관들이다.

실제로 금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 등을 비대면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텀플스테이를 무료로 제공했다.

선문사는 산하 6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

시하고 선운문화재 등 각종행사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으며, 코로나 극복 성공으로 2,00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전주 우리노인복지센터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매일 교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자율적 방역에 나서왔다.

전주 (유)전일어객도 방역 업체와 계약해 모든 차량에 대해 살균·소독을 실시, 휴식 모를 감염 방지에 힘써 왔다.

군산 한미외국어학원은 자체 방역점검표 제작과 소독타슈·에코백·마스크 스트랩 등을 원생들에게 제공하고, 민관합동 공동방역점검단 등에도 함께 참여해 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도민들의 건강과 지역 상권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한 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긴장을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역 모범업소 수상자는 ▲우전성당(주임신부 김훈),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주지성 일원),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주지 황찬연), ▲롯데컬처웍스(주) 롯데시네마 군산내문관(영화관장 김명범), ▲CGV 영화관(대표자 정윤희), ▲한국태권도체육관(관장 이윤찬), ▲용인대점프태권도(관장 조민환), ▲덕진노인복지관(관장 하갑주), ▲우리노인복지센터(센터장 윤석근), ▲순창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센터(센터장 이나리), ▲한미외국어학원(원장 하정연), ▲샬롬Y영수학원(원장 이혜선), ▲반아름출판(대표 임정숙), ▲주자연머금(대표이사 최우

식), ▲군산로스(대표 함승오), ▲부영목욕탕(대표 김관식), ▲선유도에 물들다(대표 임봉준), ▲호숫가펜션(대표 용화숙), ▲(유)웨스턴라이프(대표 이사 조관옥), ▲(유)전일어객(대표이사 문호호) 등 모두 20곳이다.

/유호상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 연일 강행군

조봉업 행정부지사, 국토부·산림청 등 찾아 현안 반영 건의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는 4월 한달이 부처단계 예산 반영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연일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부처단계부터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 도 지휘부를 중심으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21일 국토부·산림청·문화체육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

된 사업 중 6개 미착수 사업지구의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변형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건설사업의 국비 반영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산림청 차장을 만나 당선인 지역 공약연계사업으로 제안된 지역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과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함께, 완주군에 설립예정인 국립 나라꽃 무궁화연구소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을 협조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차장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태조 어진 보관 목적의 산성인 위봉산성의 원형 복원과 경관 개선을 위한 내년 사업비 지원과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지구를 위한 실천, 지금 나부터

전북도,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기후변화주간 운영

전북도는 지구의 날(4월 22일) 제82주년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비로 지금, 나부터!'이며,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비로 지금, 나부터 기후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다양한 탄소중립 홍보·캠페인이 펼쳐진다.

특히, 전북도는 민관협력을 통한 범도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포마코끼리가게길 지구의 날 행사, 2050 탄소중립 실천서약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구의 날인 22일은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가 열린다.

/유호상 기자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위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팔 98명 등 도내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 도, 남원·완주 등 순차 도입키로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 중 98명이 지난 20일 도내 최초로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창군에서 초청한 네팔(마차푸라데) 근로자로,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80명이 입국해 고창 지역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8면)

또한, 남원시(30명), 완주군(30명), 진안군(45명), 무주군(152명) 등에서도 4~5월 중 외국인계절근로자 263명의 단체 도입을 위한 비자 심사 과정에 있어, 이들 외국인근로자가 속속 입국하면 도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농사철에 비상이 걸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위해 지자체 간 MOU를 통한 단체 도입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예정된 외국인계절근로자는 1,741명으로 지자체 간 MOU를 통한 단체 도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도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4촌 이내) 초청 방식이나, 국내 체류 계절근로 제도 활용을 통해 원활한 인력 수급을 도모할 계



21일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네팔 계절근로자 98명 입국 환영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획이다.

도내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 중 계절근로 희망자는 총 2,091명(남 1,227, 여 864)으로 파악되며, 국적별로는 베트남 1,344명(64%), 필리핀 332명(16%), 캄보디아 157명(8%), 중국 140명(7%), 기타(네팔, 몽골 등) 115명 순이다.

또한, 올해부터 상시화된 국내 체류 외국인외국인계절근로 대상인 방문통기(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해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시설관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

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2022년 상반기 2개소(무주군(무주농협) 100명, 임실군(오수관촌농협) 40명)을 운영해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영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농촌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21일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네팔 계절근로자 98명 입국 환영식을 열었다.

/유호상기자·고창=김영식기자

다들 물어보는 으뜸도시 완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함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 (2년간)

■ 적용범위

-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적용지역 및 대상

- 읍·면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시지역(인구 50만미만)의 농지 및 임야

■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절차

- ① 민원인** → 특조법 보증서에 보증인(5명) 날인 (보증인 5명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 보증서(1부), 확인서발급 신청서(2부) 작성 군청 종합민원관에 확인서발급 신청
 - 확인서 발급(군청) → 등기신청(법원)
 - ※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첨부
- ② 보증인** → 민원인이 보증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 기재내용 확인 후 반드시 보증인 위촉대장에 신고한 인감을 보증서에 날인
 - ※ 읍·면장으로 부터 토지 소재지 리별 선임 보증인으로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간인 날인후 보증서 발급
- ③ 군청** → 확인서발급 신청서 접수 → 보증취지 및 현장조사 → 공 고(2개월)
 -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통지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확인서 발급

완주군
WANJUGUN